

“마스크 완화에도 감소세...전면해제 시점 종합 판단”

확진자 전주 비 15.8% ↓...위험도 ‘낮음’ 주간 일 평균 사망자 20명...34.7% 감소 BN.1 국내 검출률 59.8%...재감염률 25%

2월 2주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5.8% 하락하면서 4주 연속 ‘낮음’ 단계의 위험도를 유지했다.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완화됐지만 유행은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 당국은 유행이 계속 안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남아있는 의무도 조기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2월 2주(2월5일~2월11일) 주간 위험도 평가를 보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 평가는 4주 연속 ‘낮음’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신규 확진·위중증·사망자 수 등 주요 발생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5.8% 감소한 9만4868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으로 나타났다. 전과력을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미만을 6주째 유지했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4.7% 감소해 일평균 20명이다.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이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20.7% 감소한 292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

환자실 가동률은 18.8%, 수도권 16.7%, 비수도권 22.9%다. 전국과 수도권이 10%대로 4주 연속 감소했다.

전반적인 방역 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1월 4주차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전주 대비 상승했다. 중증화율은 0.22%에서 0.25로, 치명률은 0.09%에서 0.11%로 올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체 확진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20%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전체 치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2가 백신 접종과 의료진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더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3%로 지난주(32.5%) 대비 0.5%p 상승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우세종이 된 BN.1의 경우 전체 감염률이 59.8%로 전

주대비 4.5%p 증가했다. 국내감염은 60.6%, 해외유입은 42.4%로 나타났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전주 12.8%에서 10.8%로 감소했다. 국내감염을 기준으로 BF.7, BQ.1.1, BA.2.75, CH.1.1 변이 바이러스는 전주대비 검출률이 감소했다.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XBB.1.5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은 전주 0.8%에서 1.5%로 증가했다.

한편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24.85%로 직전 주인 23.02%보다 증가했다. 지난 5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68만2694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37만6584명(4.8%)으로 집계됐다.

임 단장은 “방역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표”라며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감염되었던 분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진됐던 분들도 재감염의 우려가 커진 만큼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고령층 또는 고위험군들께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동절기 접종을 맞아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마스크 부분 완화 이후에도 유행이 대체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가능성도 높아졌다.

방역 당국은 당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5월 이후에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방역 상황에 대해 계속 평가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 등에 대해서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마스크(전면해제)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서울시청 앞에서 159배하는 유가족들

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159배를 하고 있다.

전남 산업집적지 매매 관련 역대 사기범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산업집적지 매매와 관련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모(69)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씨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전남의 한 산업집적지(230억 원대 지식산업센터 관련 부지)를 매매 계약하던 지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여씨는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지식산업센터 분양 불가)인 줄 모르고 땅 매수자로 참여했다가 계약 열흘 뒤 이를 알았다. 이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으나 A씨가 35억 원 할인을 약속해 기다려왔다. 이후 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A씨가 이후 실제 토지 매각에 성공해 얻은 차익 100억여 원 중 일부를 주기도 했다”며 사기 행위가 아니라

는 주장이다.

검사는 약정서 내용(대여·이자 포함)과 사건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여씨가 부동산 공동 매수인 행세를 하며 A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 주겠다고 접근해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35억 원 상당의 보상이 비현실적이고 여씨가 부동산 정산 과정을 기록한 메모에 보상이 아닌 잔액이라고 표기한 점, 여씨가 사업 인허가 불가능 문제(입주 승인)를 차용 전인 2019년 12월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여씨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씨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정서 내용이 비사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하거나 여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 과정과 여씨의 자산 상태를 봐도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